

중국 보타산 불공거관음상(不肯去觀音像)과 고려 중기 보살상

— 봉정사,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연원과 관련하여* —

최선아**

- I. 문제제기
- II. 센뉴지 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니시타니 이사오(西谷功)의 연구를 중심으로
- III. 보타산 신앙의 전개와 〈불공거관음상〉
- IV. 〈불공거관음상〉의 고려 전래
- V. 마치며

I. 문제제기

고려 불교조각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 중 하나는 발원문이나 개금증수문의 발견으로 12세기 내지는 13세기 전반으로 제작연대를 소급하게 된 상들이 여럿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안암동 개운사(開運寺)와 충남 서산 개심사(開心寺)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그리고 경북 안동 봉정사(鳳停寺)와 보광사(普光寺)의 목조관음보살좌상(도 1, 2) 등이 바로 그러한 예다. 개운사 상은 1996년 조사 시 상의 내부에서 지원(至元) 11년, 즉 1274년 상이 개금되었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787)

** 명지대학교 부교수

*** 이 글의 초고를 꼼꼼히 읽고 의미있는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과 삼성미술관 리움의 이승혜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도 1 <관음보살좌상>, 고려 1199년, 목조, 높이 104cm, 경북 안동 봉정사 (문화재청)



도 2 <관음보살좌상>, 고려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목조, 높이 118cm, 경북 안동 보광사 (최선아)

을 알려주는 발원문이 발견되었으며, 개심사 상은 2007년 조사로 복장(腹藏) 구멍을 막은 봉함 목 안쪽에 지원 17년(1280) 불상을 보수했다는 명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¹ 봉정사 상은 2000년 만세루(萬歲樓)에 있던 <대웅전관음개금현판(大雄殿觀音改金懸板)>을 해독하던 중 ‘오랫동안 절에 봉안되어 있던 관음보살상은 승안(承安) 4년(1199)에 처음 조성되었다’는 문구를 발견했고, 보광사 상은 2007년 조사 과정 중 상의 제작연대를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추정할 복

¹ 개운사 상은 문명대, 『高麗 13世紀 彫刻樣式과 開運寺藏 鷲峰寺 木阿彌陀佛像의 研究』, 『강좌미술사』 8 (1996), pp. 40-47에 처음 소개되었다. 해당 명문은 1274년 작성된 中幹大師 발원문에 있는 “是以去愛所持馬舊金塗古寺毀(無量壽佛)이다. 이 구절을 “말을 가지고 금을 팔아 古寺를 칠하고 무량수불을 조성하여”라고 번역해 상의 제작을 1274년으로 보았으나, “말로 금을 구입해 옛 절의 훼손된 무량수불을 칠합니다”로 번역해 1274년을 개금중수년으로도 보기도 한다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 조각 연구』 (일조각, 2013), p. 276;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017), p. 83).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설을 따랐다. 개심사 상의 명문은 최성은, 『瑞山 開心寺 목조 아미타불좌상과 고려 후기 불교 조각』,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및 同著,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30 (2008. 2), p. 116을 참조.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至元十七年庚辰十一月十四日 別立僧齋色修補開心社堂主無量壽如來…(下略).”

장물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² 이상 4구의 불, 보살상은 한동안 14세기 내지는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졌다.³ 그러나 이처럼 근래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제작 시기를 100여 년 이상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1270년 몽고전란을 기점으로 전, 후기로 구분을 해 왔던 고려 불교 조각사 연구에 소위 “중기”의 설정이 가능해졌다. 추상적인 양식의 거불(巨佛)이나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철불이 활발히 제작되었던 10~11세기를 전기로, 그리고 원(元)과의 교류를 통해 이국적인 양식이 등장했던 13세기 후반~14세기를 후기로 보고, 그 사이 안정감 넘치는 양식의 불, 보살상이 제작되기 시작한 12~13세기를 중기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⁴ 중기로 편년된 위 네 구의 상들은 전통양식을 계승한 고려 후기 불, 보살상의 대표작으로 여겨진 청양 장곡사(長谷寺) 금동약사여래좌상(1346)이나 서산 부석사(浮石寺, 쓰시마 간논지 소장) 금동관음보살상(1330)의 형식적 연원으로 재설정되었다.

이처럼 12세기를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상이 제작되게 된 배경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인접국가와의 교류를 주목했다. 예를 들어 불, 보살상에 공통으로 보이는 소위 변형통견식(變形通肩式) 착의법이나 승각기(僧脚碁)와 금구(金具) 장식, 그리고 균의의 띠매듭 등이 941년의 명문이 있는 영주(永州) 의봉사(儀鳳寺) 선각관음보살좌상을 필두로 요(遼), 송(宋), 금(金)을 거쳐 원대(元代)에까지 이른다고 보았다.⁵ 그 중에서도 일본 교토 센뉴

2 봉정사 만세루의 <대웅전관음개금현판>은 1753년 작성된 것으로, 해당 구절은 “蓋佛像初勅於承安四年 而厥後大元至正二十四年始以改金 今於乾隆十六年亦爲改金”이다. 현판의 기록보다는 상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 14세기 후반 제작되었다고 본 의견도 있으나(김장균, 『安東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考』, 『성보』 3 (대한불교조계종 성보 보존위원회, 2001), pp. 6-30), 대체로 현판의 기록대로 1199년 제작으로 보고 있다 (정은우,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미술사학연구』 228·229 (2001. 3), pp. 5-35; 최성은, 『高麗後期 佛教彫刻과 南宋彫刻 關係』, 『강좌미술사』 22 (2004. 6), pp. 5-22); 임남수, 『X선투과촬영 장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2007), pp. 73-94 등). 보광사 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 중에는 1007년의 간기가 있는 <寶篋印陀羅尼經>, 1095년 간기의 <貞元新譯華嚴經疏>, 그리고 1150년 간기의 <梵書摠持集> 등 고려 전기로 올라가는 중요한 전적류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의 제작연대를 12세기말에서 13세기 초반으로 올려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p. 58.

3 예를 들어 문명대는 개운사 상의 복장을 조사하기 전 양식 분석에 의거해 상이 14세기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문명대,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中心으로—』, 『古文化』 22 (1983. 5), p. 68).

4 고려 “중기”의 설정은 주로 2007년 이후 발표된 정은우의 논문에서 보인다. 정은우,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 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2007), pp. 3-20; 정은우,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2008), pp. 180-212; 정은우,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3), pp. 43-71 등.

5 정은우,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 63.

지(泉涌寺)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도 3)은 봉정사, 보광사 관음보살상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었다.⁶ 기둥처럼 높이 솟은 보계(寶髻)와 어깨를 타고 내려오는 보발(寶髮), 왼쪽 가슴의 금구 장식 및 가슴에 드리워진 영락,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려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 둥글고 좁은 어깨,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까지 두 구의 고려 보살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 더욱이 가소성 있는 물질을 이용해 보발과 영락을 별도로 붙이고 눈에 수정을 감입한 것 등 제작 기법 면에서도 유사성이 지적되어, 세 상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⁷

센뉴지 상은 1255년 승려 단카이(湛海)가 남송(南宋)에서 제작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근래 새로운 자료의 발견으로 상의 제작 및 청래 연도가 1230년경으로 앞당겨졌으며, 상의 연원과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카이 입승 당시 강남에서 유행했던 중국 보타산(普陀山)의 관음상이 모각(模刻)의 대상이었을 것이라 주장한 니시타니 이사오(西谷功)의 의견이 그것이다.⁸ 보타산은 절강성(浙江省) 주산반도(舟山半島)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전승에 의하면 9세기 이래 중국 불교도들에 의해 관음보살의 주처(住處)로 여겨진 곳이다. 본 논문은 니시타니의 연구를 바탕으로 센뉴지 관음상의 제작



도 3 <관음보살좌상>, 남송 1230년 경, 목조, 높이 114cm, 교토 센뉴지(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87)

6 정은우, 앞의 논문 (2001), p. 62-63 외 주4)에 거론된 논문들: 정은우, 「송대 불교조각의 고려 유입과 선택」, 『미술사연구』 25 (2011), pp. 39-65 등. 그리고 최성은, 앞의 논문 (2004), pp. 5-24 등.

7 임남수, 앞의 논문: 정은우, 앞의 논문 (2008);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앞의 책.

8 西谷功, 「泉涌寺僧普陀山信仰—觀音菩薩坐像請來意圖」,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260-263; 同著, 「楊貴妃觀音像의〈誕生〉(東アジアを結モノ・場)」, 『アジア遊學』 132 (2010), pp. 112-127; 同著, 「佛牙舍利, 韋馱天, 普陀山觀音と宋代佛教文化—泉涌寺僧による「唐物」の請來と展開」, 『特別展 唐物: 中世鎌倉文化を彩る海の恩恵』 (神奈川: 神奈川県立金沢文庫, 2017), pp. 97-102. 이상의 논문은 그의 책, 『南末・鎌倉佛教文化史論』 (東京: 勉誠出版, 2018)에 재수록 되었다.

연대와 의미를 소개하는 한편, 그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보타산 관음상의 연원과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신라 및 고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봉정사, 보광사 상의 제작연대는 대체로 1199년과 12세기 후반~13세기 초로 여겨진다. 이는 청래시기가 1230년 경으로 밝혀진 센뉴지 상에 비해 30여 년 앞선 시기다. 따라서 센뉴지 상은 봉정사, 보광사 상과 자주 비교되어 왔지만, 그 자체가 두 고려 보살상의 도상적 연원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봉정사, 보광사, 그리고 센뉴지 세 상이 모델로 하는 다른 특정한 상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12~13세기 고려와 가마쿠라에서 그와 같은 형식의 관음 보살상이 제작되고 청래되었던 배경과 맥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도 중국 보타산 신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적지 않았다.⁹ 그 중에서도 결과부좌를 한 봉정사, 보광사 상을 비롯해 윤왕좌(輪王座)를 한 강진과 해남 대흥사의 금동 보살상, 반가(半跏)의 자세를 한 개성 관음굴의 석조보살상 등 다양한 형식의 관음상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배경으로 중국 보타산 신앙이 언급되었다.¹⁰ 중국 보타산 신앙을 고려 후기에 제작된 수월관음도와 연관지어 고찰한 논문도 발표된 바 있다.¹¹ 하지만 봉정사, 보광사 상의 도상적 연원으로 보타산에 봉안되었던 특정한 보살상을 지목하고, 그것이 고려로 전래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봉정사, 보광사 상처럼 고려 중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보살상의 연원을 보타산의 개창과 관련된 소위 “불공거관음상(不肯去觀音像)”에서 찾고자 한다. 그리고 이 상의 유래 및 12~13세기 남송에서의 유행, 그리고 고려와 일본 가마쿠라로의 전래 배경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센뉴지 관음보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고, 그 연원으로 지목된 보타산 관음상을 기록과 현존하는 작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이어 이 상이 고려에 소개되었던 시점과 계기를 제시해 보겠다. 이를 통해 고려 중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식의 관음상을 특정한 신앙 체계와 연결하고, 그것이 향후 고려 및 조선에서 유행하게 된 종교적, 시각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⁹ 역사학 방면에서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4장에서 소개하겠다.

¹⁰ 정은우, 앞의 논문 (2011), p. 59.

¹¹ 황금순, 「洛山說話와 高麗水月觀音圖, 普陀山觀音道場」, 『불교학연구』 제18호 (2007. 12), pp. 93-118.

II. 센뉴지 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니시타니 이사오(西谷功)의 연구를 중심으로

교토 동산(東山)에 위치한 센뉴지는 가마쿠라 초인 가록(嘉祿) 2년(1226), 입송(入宋) 승순조(俊苒)에 의해 개창된 사찰이다. 12년간 강남에 머물렀던 순조는 건력(建歷) 원년(1211) 귀국 후 남송의 최신 불교문화를 도입해 센뉴지를 창건했다.¹² 센뉴지 창건 후 동산 9조 주변에는 송풍(宋風) 가람이 연이어 세워져 이국정서가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간에 남송의 관음보살좌상이 모셔지게 된 것은 순조의 제자 단카이에 의해서이다. 『본조고승전(本朝高僧傳)』(1702년)에 의하면 그는 가정(嘉禎) 말년(1236) 경에 처음 입송해 관원(寬元) 2년(1242) 일본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다시 송에 가 건장(建長) 7년(1255)에 귀조(歸朝)했다고 한다.¹³ 그러나 여기에는 관음상을 청래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반면 『천용사요집(泉涌寺要集)』에 수록된 「관음당 보타해산 원통보각 편액 안쪽의 명문(觀音堂補陀海山圓通寶閣 額裏ノ銘)」에는 “옛날 단카이가 다시(再度) 입송해 관희(寬喜) 2년(1230) 6월 이 관음상과 액반(額盤)을 받아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 상 청래를 확인할 수 있다.¹⁴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관희 2년은 『본조고승전』의 기록과 맞지 않아 상의 청래 연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니시카와 신지(西川新次)는 관희 2년을 관원 2년의 오기로 보고 상의 청래를 단카이가 첫 입송에서 귀국한 관원 2년, 즉 1242년으로 보았다.¹⁵ 반면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는 건장 7년(1255)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시 입송했다”는 구절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후자의 설을 따라 센뉴지 상의 제작 및 청래 연도를 1255년으로 소개해왔다.¹⁷

그런데 2008년 센뉴지에서 〈보타해산 원통보각〉 편액이 발견되어 『천용사요집』의 기록을

¹² 순조는 주로 율(律)과 천대 등 여러 교학을 겸학했다. 그의 행적 및 위상에 대해서는 『不可棄法師傳』(1244) 및 石田充之編, 『鎌倉佛教成立の研究—俊苒律師』(東京: 法藏館, 1972) 참조.

¹³ 『本朝高僧傳』 卷58 (『大日本佛教全書』 第102・103册, pp. 768-69). 西川新次, 「宋風彫刻雜感—楊貴妃觀音を巡って」, 『MUSEUM』 295 (東京國立博物館, 1975), p. 4. 『本朝高僧傳』에는 입송과 귀조의 연대가 남송의 연호로 표기되어 있다.

¹⁴ “昔當寺比丘湛海再渡宋朝寬喜二年夏六月 此將來觀音像并額盤.” 西谷功, 앞의 논문 (2009), p. 260 재인용.

¹⁵ 西川新次, 앞의 논문, p. 4

¹⁶ 井手誠之輔, 「圖版解説: 長野・定勝寺所藏 補陀洛山聖境圖」, 『美術研究』 no 365 (1996), p. 44.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佛たち』(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의 도판해설 (도 70, p. 249)에서도 1255년 청래로 보았다.

¹⁷ 임남수, 앞의 논문, p. 87; 최승은, 앞의 논문 (2004), p. 15. 반면 정은우는 “단카이가 1230년과 1250년 두 번 건너가 주문 제작해 온 것”이라고 했다. 정은우, 앞의 논문 (2011), p. 59.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발견된 편액은 잔존 높이가 97.6cm로 본래 매우 큰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폭 17cm 정도의 왼쪽 잔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도 4). 그러나 여기에는 두 줄로 새겨진 명문, “昔當寺比丘湛海再渡宋朝寬喜二年夏六月/ 此將來觀音像并額盤但未刻字今維那比丘”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¹⁸ 이 구절은 『천용사요집』에 채록된 명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더욱이 『천용사요집』에는 이 구절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명문이 새겨졌을 당시의 상황과 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명문은 상과 액반의 청래 37년 후인 1267년에 새긴 것이라 한다.¹⁹ 이는 18세기에 편찬된 『본조고승전』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따라서 상의 청래 시기는 명문에서와 같이 관희 2년, 즉 1230년으로 확인되며, 오히려 『본조고승전』에 기록된 단카이의 입송 연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센뉴지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온 니시타니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단카이의 첫 입송은 1211년에서 27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1228년 다시 입송해 관음상 제작을 의뢰하고 명문에서처럼 1230년 상과 액반을 청래했을 것으로 보았다.²⁰



도 4 <보타해산 원통보전 편액 잔편>, 남송 1230년 경(각명은 1267년), 목조, 96.7cm×17cm, 교토 센뉴지(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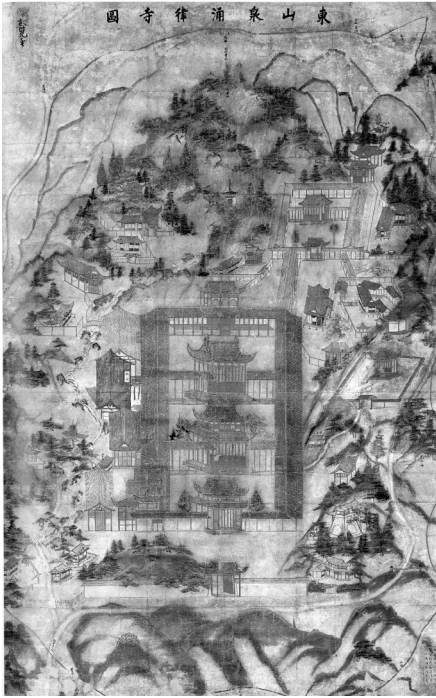
이에 더해 그는 상이 청래된 배경을 당시 남송에서 유행한 보타산 신앙에서 찾았다. 센뉴지 관음상은 현재 산문(山門) 입구 가까운 쪽에 위치한 양귀비관음당(楊貴妃觀音堂)에 안치되어 양귀비관음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명칭은 17세기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²¹ 더욱이 봉안 위치도 현재와는 달랐다. 창건 당시의 센뉴지 가람은 오닌(應仁)의 난(1467~1477)을 계기로 전소되었지만, 14세기에 그려진 것

¹⁸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도 88, p. 303(도판해설).

¹⁹ 각문 이후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思照建治二年季秋九月幹緣刻字押薄懸閣修理施主 沙彌明達 金薄施主 沙彌寂慧 泉湧寺住持比丘 思允敬誌.” 西谷 功, 앞의 논문(2009), p. 260 재인용.

²⁰ 西谷 功, 앞의 논문(2009), p. 263.

²¹ 이 상과 당 玄宗의 비 양귀비를 연관 짓는 것은 『泉涌寺再興日次記』 寬文 5年(1665) 4월 10일조 기사에서 처음 보인다 (“古山門本尊觀音(并二脇士(共玄宗皇帝爲貴妃被作之, 開山(傳來)安置來迎院). 상이 양귀비관음상으로 인식되게 된 과정 및 배경에 대해서는 西谷 功, 앞의 논문(2010), pp. 112-127 참조.



도 5 <동산천용율사도>, 가마쿠라 14세기,
지본채색, 209cm×133.5cm, 교토 센뉴지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139)

으로 추정되는 <동산천용율사도(東山泉涌律寺圖)>(도 5)를 통해 전소 전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다.²² 관음상이 봉안되었던 위치는 15세기 전반기 기록인 『살계기(薩戒記)』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살계기』는 나카야마 사다치카(中山定親)의 일기로, 그는 응영(應永) 32년(1424) 7월 12일 센뉴지를 참배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산문을 들어간 후 서랑(西廊)을 통해 배법당(拜法堂)에 갔는데, 이층으로 된 법당 상층에서 양류관음상(楊柳觀音像)을 보았다고 한다.²³ 절 내의 동선 및 건물의 층수를 고려했을 때, 관음상의 본래 봉안 위치는 앞에서 두 번째 이층으로 된 건물의 상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 5). 그리고 이곳에 지금은 잔편으로 남은 <보타해산 원통보각> 편액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한편 『살계기』에서는 법당에 모셔졌던 상을 “양류관음”이라 칭했으나, 니시타니는 이를 관음

상을 일컫는 보편적인 명칭으로 보았다. 오히려 구체적인 의미는 상과 함께 청래한 편액의 액명, 즉 “보타해산 원통보각”에 있다고 주장했다. 센뉴지 관음상이 보타산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상과 함께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구의 협시상이다. 현재 양귀비관음당 내 관음상은 16나한상과 함께 모셔져 있지만, 여러 기록을 통해 본래 두 구의 협시상과 함께 봉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용사재흥일차기(泉涌寺再興日次記)』 관문(寬文) 5년(1665) 4월 10일조의 “옛 산문의 본존 관음과 두 협시상은…(후략)”과 『천용사도난계철(泉湧寺

²² 이 그림은 현재 교토 센뉴지에 소장되어 있으며, 몇 군데 가필이 보이지만 1226년 완성된 법당을 비롯해 승려殿, 十六觀音堂 등 창건 당초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14세기 작으로 본다. 奈良國立博物館, 앞의 책, p.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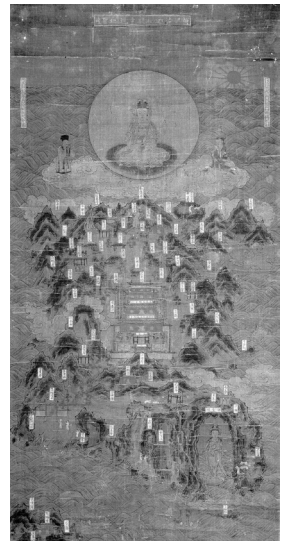
²³ “十二日…(中略)…詣東山泉湧寺…(中略)…入惣門(額云, 東山, 不知筆者)逢東行入山門(額云, 泉湧寺, 張之筆也)經西廊拜法堂, 有二層, 上奉安置楊柳觀音, 此觀音自天竺所奉渡之云…(後略).” 西谷 功, 앞의 논문 (2009), p. 261 재 인용.

『盜難届綴』의 “불당에 안치되었던 목조 월개장자(月蓋長子) 상과 선재동자(善哉童子) 상은 모두 송(宋) 불공(佛工)이 만든 것으로 각각 크기는 2척 3촌과 1척 9촌인데, 1889년 도난당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²⁴ 현재 센뉴지에는 목조 월개장자상이 전하는데(도 6), 길고 세장한 얼굴과 둥글고 좁은 어깨, 간략하게 처리한 뒷면의 옷주름, 그리고 목재를 분할해 제작한 점과 가소성 있는 물질을 부착해 머리를 표현한 점 등이 관음상과 유사하다. 더욱이 높이도 69.5cm로, 기록에서 말하는 2척 3촌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상은 문헌에 나오는 월개장자상으로 추정된다. 함께 관음의 협시를 이뤘을 선재동자상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처럼 센뉴지 상은 월개장자, 선재동자와 삼존의 구성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조합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 이러한 조합이 확인되는 것은 14세기 경 중국에서 제작된 <보타락산성경도(補陀洛山聖境圖)>(도 7) 정도다.²⁵ 이 그림은 현재 일본 나가노(長野)현 기조(木曾)군에 위치한 조쇼지(淨勝寺)에 소장되어 있으며, 높이 113.17cm 크기의 비단 위에 보타산의 모습을 조감적 시점으로 그려내었다. 그림 위에는 총 80여 개의 방제를 적어 보타산 내외의 장소를 명시했으며, 그 중 대다수는 1298년 편찬된 『대덕창국주도지(大德昌國州圖志)』나 1361년 편찬된 『보타락가산전(普陀洛迦山傳)』에서 확인되는 실제 지명이다. 화면 상부에는 큰 원광이 있고,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보살이 풀 방석 위에 앉아 있다(도 8). 그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



도 6 <월개장자상>, 남송 13세기, 목조, 높이 69.5cm, 교토 센뉴지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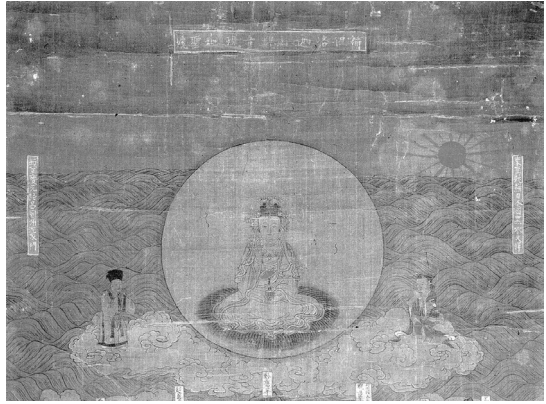
도 7 <보타락산성경도>, 원 14세기, 견본채색, 112.8cm×56.5cm, 나가노 조쇼지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86)

²⁴ 『泉涌寺再興日次記』 기록은 앞 각주 21 참조. 『泉湧寺盜難届綴』의 기록은 明治 22년(1889) 1월 27일 조에 해당된다. 원문은 “月蓋長者木立像 2尺3寸 作者宋佛工.” “善哉童子木立像 1尺9寸 作者宋佛工.” 西谷功, 앞의 논문(2009), p. 261 재인용.

²⁵ 西谷功, 앞의 논문(2009), p. 261; 이 그림에 대한 가장 자세한 소개 및 고증은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1996), pp. 39-49 참조. 井手도 그림의 관음 삼존과 센뉴지 상과의 연관성을 언급했다(p. 45). 그림의 제작 연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겠다.



도 8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도 9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을 살짝 구부렸으며, 왼손은 손바닥을 펴 몸 가운데 두고 정병을 받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굽고 긴 연꽃 가지를 든 센뉴지 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넓고 긴 볼과 길쭉한 얼굴, 긴 코와 작은 입술, 차분한 표정, 둥글고 좁은 어깨, 세부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착의의 구성, 가슴에 늘어뜨린 영락의 표현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관음의 왼편에는 두 손을 모으고 관음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는 선재동자가 있으며, 오른편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심의(深衣)를 입은 남자가 관음을 향해 합장을 하고 있는데(도 9), 바로 이 인물을 월개장자로 추정한다.

선재동자가 관음의 협시로 등장한 것은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이나 그 내용을 도해한 수월관음도의 구성을 참조했을 때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월개장자가 관음의 협시로 등장한 것은 드문 일이다. 월개장자는 5세기 초 동진(東晉) 축난제(竺難提)가 한역한 『청관음경(請觀音經)』에 등장하는 인물로, 역병에 걸린 바이샬리국인들을 위해 아미타불에게 구원을 청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경전에는 구제를 위해 내려온 아미타삼존 중 관음보살에게 바이샬리국인들이 감사의 뜻으로 버드나무 가지[楊枝]와 깨끗한 물[淨水]을 바쳤다는 대목이 있어, 양류관음의 도상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된다.²⁶ 그러나 이는 관음의 협

²⁶ 경전의 원 제목은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이다. 이상의 내용은 T. no. 1043, vol. 20, pp. 34b29-34c15에 나온다(有一長者名曰月蓋 與其同類五百長者 俱詣佛所到佛所已頭面作禮卻住一面 自言世尊 此國人民遇大惡病 良醫者婆盡其道術所不能救 唯願天尊慈愍一切 救濟病苦令得無患 爾時世尊告長者言 去此不遠正主西方 有佛世尊名無量壽 彼有菩薩名觀世音及大勢至 恒以大悲憐愍一切救濟苦厄 汝今應當五體投地向彼作禮 燒香散華念數息 令心不散經十念頃 爲衆生故當請彼佛及二菩薩 說是語時於佛光中 得見西方無量壽佛并二菩薩 如來神力佛

시로 월개장자가 등장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에 월개장자는 보타산의 열렬한 후원자로 유명한 남송대 명문가 사씨(史氏) 일족의 더블 이미지(double image)로 표상(表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²⁷ 여기서 말하는 사씨 일족은 남송의 재상이었던 사호(史浩)와 그의 아들로 역시 재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미원(史彌遠)을 뜻한다.²⁸ 월개장자가 관음의 협시로 등장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보타락산성경도>를 근거로 최소한 이러한 삼존의 구성은 14세기 보타산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센뉴지 월개장자상과 선재동자상도 송에서 제작해 가져온 것이라 한다면, 단카이 가 관음상 제작을 의뢰했던 13세기 전반 경 강남 지방에서도 그러한 삼존 구성이 존재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으로 <보타락산성경도>에 그려진 관음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Ⅲ. 보타산 신앙의 전개와 <불공거관음상>

중국 절강성 주산반도에 위치한 보타산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뱃길 가운데 하나였으며, 특히 풍량이 세 배가 좌초하기 쉬운 지점이었다. 이에 순항을 기원하거나 조난으로부터의 구제를 바라며 관음에게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특히 관음의 시현(示現)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관음의 주처로 확고히 인식되었다. 비록 역사적인 부침은 있었으나 북송 이래 지속적으로 황실의 후원을 받으며 관음 성지로서 위상을 더했고, 결국 청대(清代)에는 많은 신도들이 찾는 불교 순례지로 거듭났다. 보타산이 관음의 주처로 인식되고 발전한 과정은 여러 연구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밝혀졌다. 『화엄경』, 『법화경(法華經)』 등과 같은 경전적 근거를

及菩薩俱到此國 往毘舍離住城門闕。佛二菩薩與諸大眾放大光明。照毘舍離皆作金色。爾時毘舍離人。即具楊枝淨水。授與觀世音菩薩 大悲觀世音 憐愍救護一切衆生故而說咒。 양류관음 도상의 성립과 의미에 대해서는 강희정, 「中國 古代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32 (2001. 12), pp. 157-176; 同著,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 남북조시대에서 당까지』 (일지사, 2004), pp. 156-204 참조. 『청관음경』과 관련된 내용은 책 p. 172.

²⁷ 井手誠之輔, 「入宋僧と寧波文化—討論」, 『寧波の美術と海域交流』 (東京: 中國書店, 2009), p. 220.

²⁸ 史浩와 史彌遠의 보타산 신앙은 『普陀洛迦山傳』을 비롯한 보타산 산지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논문도 있다. 佐藤成順, 「南宋の宰相史浩の補陀山觀音信仰について」, 『鴨台史學』 4 (2004), pp. 1-27. 니시타니 역시 월개장자가 사대부풍으로 표현된 점에 주목해 남송대 사대부의 보타산 신앙을 고찰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²⁹ 井手도 관음, 월개장자, 선재동자로 이루어진 삼존의 존상이 당시 영파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았다. 井手誠之輔, 앞의 논문 (1996), p. 45.

밝히며 중국 관음신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보타산을 조명하는 연구가 주로 행해졌고, 근래에는 명(明), 청대 활발히 간행된 산지(山志)를 통해 보타산의 발전 양상을 흥미롭게 재구성한 결과물도 등장했다.³⁰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센뉴지 관음상이 제작되고 청래되었던 1230년 경 보타산의 모습을 추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비록 당시의 유물은 현재 섬 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13세기 보타산의 사정을 알려주는 일련의 기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4세기에 편찬된 『보타락가산전』이다.³¹ 이 문헌은 현존하는 보타산 최고(最古)의 산지로, 원 1361년 성희명(盛熙明)이 찬술했다.³² 「자재공덕품(自在功德品)」을 시작으로 총 7품으로 구성된 길지 않은 기록이다. 그 중 제3품 「동우봉성품(洞宇封域品)」에서는 보타사(寶陀寺), 조음동(潮音洞), 선재동(善財洞), 진혈암(眞歇庵) 등 당시 보타산에 있던 성적(聖蹟)들을 소개했으며, 제4품 「응감상서품(應感祥瑞品)」에서는 당 대중(大中) 연간(846~859) 이래 보타산에서 벌어진 각종 상서로운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제5품 「흥건沿革품(興建沿革品)」에서는 양(梁) 정명(貞明) 2년(916) 이래 보타산에 세워진 불전 및 불사를 자세히 기술했다.

이 중 센뉴지 관음상의 제작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13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보타 관음사(寶陀觀音寺) 원통전(圓通殿)의 보수와 장엄이다. 이 내용은 「흥건沿革품」 남송 가정(嘉定) 3년(1210) 8월 조에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대풍우로 원통전이 무너졌는데, 보타산 승려 덕소(德韶)가 조정에 고해 자금을 얻어 7년에 걸쳐 전각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음동 인근에는 가교(駕橋)를 놓았는데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원통보전(圓通寶殿)”과 “대사교(大士橋)”의 어서(御書)를 내렸는데, 용장각(龍章閣)을 세워 보관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승상(丞相) 사미원이 아버지 사호의 뜻을 받들어 재산을 내어 절을 장엄했고, 모든 것이 완비된 후 조정에 고하니 신한(宸翰)과 금란의(金欄衣), 은발(銀鉢) 등 진귀한 보물을 내려주었다고 한

³⁰ 보타산 신앙의 경전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겠다. 문헌적 배경과 인도 및 중국, 한국에서의 전개에 대해서는 정병삼, 「인도와 한국의 관음신앙 비교연구」, 『한국학연구』 6집 (1996), pp. 57-81 참조. 그 외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Chün-fang Yü, “P'u-t'o Shan: Pilgrimage and the Creation of the Chinese Potalaka,” in *Pilgrimage and Sacred Places in China*, edited by Susan Naquin and Chün-fang Yü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90-245; *idem*,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石野一晴, 「明代万曆年間における普陀山の復興—中国巡礼史研究序説—」, 『東洋史研究』 第64卷 1号 (2005), pp. 1-36; Marcus Bingenheimer, *Island of Guanyin: Mount Putuo and Its Gazette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등.

³¹ T. no. 2101, vol. 51, pp. 1135a23-1140b21.

³² 『보타락가산전』 서두에 “大元丘茲盛熙明述”이라 되어 있어 저자를 알 수 있다 (T. no. 2101, vol. 51, pp. 1135a25).

다.³³ 이처럼 조정 및 승상으로부터 아낌없는 후원을 받았던 13세기 전반은 보타산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 이 때 보수된 보타관음사는 보타산에 처음으로 세워진 사찰이다. 절이 “보타관음사”라 명명된 것은 북송 원풍(元豐) 3년(1080)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게 되면서이며, 그전에는 관음원(觀音院)이라 불린 작은 전각이었다.³⁴ 관음원의 창건 역시 『보타락가산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감상서품」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 대중…(중략)…일본 승 에가쿠(慧顛)가 오대산(五臺山)에서 보살상을 얻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데, 암초에 걸려 배가 움직이지 않았다. 조음동을 향해 묵묵히 조아리다 보니 해안에 닿았다. 이에 상을 조음동 옆 장씨(張氏) 집에 두었다. 수차례 신이(神異)가 목도되었다. 이에 집을 회사해 관음원을 지었다. 마을 관리(郡將)가 이를 듣고 상을 성안으로 맞이해 갔다. 마을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승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가목(嘉木)을 찾아 문을 걸어 잠그고 상을 깎았다. 한 달여 사이에 상이 완성되었으나, 승려의 소재는 알 수 없었다. 오늘날 [보타관음사에] 봉안한 보살상은 바로 이 상이다.³⁵

이 이야기는 일본 승려 에가쿠가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진 산서성(山西省) 오대산에서 보살상을 얻어 자국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보타산에 남겨 두어 그곳에 관음원이 세워진 계기를 설명한 것이다.³⁶ 여기 나오는 에가쿠는 실존 인물로,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그는 초주(楚州, 현 강소성 회안시)에 상륙한 후 841년 9월 오대산을 방문했으며, 남으로 내려와 천태산에 머물다 842년 봄 명주(明州, 현 절강성 영파)에서 귀국했다고 한다.³⁷ 에가쿠의 이러한 행적은 대중 연간(847~859)

33 嘉定三年庚午八月 大風雨 圓通殿摧 住山德韶 言於朝 賜錢萬緡 七年殿成 潮音洞 無措足地 鑿石駕橋 凡六年 御書圓通寶殿大士橋以賜 建龍章閣以藏之 植杉十萬 是時 有田五百六十七畝 山千六百七畝 是年 丞相史彌遠 承父志 捨財莊嚴 殿宇廊庑備具 香燈供養 上聞 賜宸翰 并金襴衣 銀鉢 瑪瑙數珠 松鹿錦旛 陳帥機 施錢一百六萬 置長明燈 (T. no. 2101, vol. 51, pp. 1137c26-1138a05).

34 T. no. 2101, vol. 51, p. 1137c21.

35 唐 大中…(中略)…日本僧慧顛 從五臺山 得菩薩像 將還國 抵焦石 舟不能動 望潮音洞 默叩得達岸 迺以像舍於洞側 張氏家 屢睹神異 遂捨居作觀音院 郡將聞之 迎像入城 爲民祈福 未幾 有僧 不知何許人 索嘉木 扇戶刻之 彌月像成 僧不知所在 今所奉菩薩像 卽此也 (T. no. 2101, vol. 51, pp. 1136c24-1136c29). 번역은 필자.

36 관음원의 창건은 「홍건연혁품」에도 나오는데, 양 정명 2년, 즉 916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梁貞明二年 日本僧惠顛 首創觀音院 在梅岑山之陰 (T. no. 2101, vol. 51, p. 1137c18)), 아마도 장씨의 집을 관음원으로 바꾼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관음원은 에가쿠 방문 50여 년 후에 창건되었다고 볼 수 있다.

37 이 내용은 『入唐求法巡禮行記』의 841년 9월 7일 조와 842년 5월 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해당 내

을 배경으로 한 『보타락가산전』의 내용보다 앞선다. 따라서 에가쿠의 관음상 장래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는 그의 재입당과 관련된 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가져와 보타산에 안치한 이가 에가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대신 지금은 보타산 관음원에 모신 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대목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야기에 의하면 에가쿠가 가져온 상은 마을로 옮기고, 보타산에는 가목을 깎아 만든 상이 봉안되었다고 한다. 이는 오대산에서 가져온 원 상의 소재지가 보타산 관음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언급된 마을(郡)은 다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남송 보경(寶慶) 3년(1227)에 편찬된 『보경사명지(寶慶四明志)』가 그것으로, 권11 개원사(開元寺) 조(條)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개원사는 은현(鄞縣) 남쪽 2리에 있다. 당 개원(開元) 28년(739)에 창건하여 그 해를 이름으로 했다. 회창(會昌) 5년 휘불 시 폐해졌다가 대중 초 자사(刺史) 이경방(李敬方)이 조정에 청해 복원했다…(중략)…[절에는] 불궁거관음(不肯去觀音)이 있다. 앞선 대중 13년(859), 일본국 승려 에가쿠(惠鑿)가 오대산(五臺山) 참례 중 중대정사(中臺精舍)에 이르렀는데, 단아하고 안색이 밝은 관음모상(觀音貌像)을 보고 간곡히 부탁하여 모시고 자기 나라로 가려 하니 사중(寺衆)이 허락했다. 에가쿠가 상을 어깨에 메고 배에 오르려 했으나 무거워 들 수가 없었다. 일행과 상인들이 힘을 다해 들어 올려 겨우 실을 수 있었다. 창국(昌國, 현 영파)의 매잠산(梅岑山, 현 보타산)을 지나는데 파도가 성나게 일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뱃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에가쿠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호승(胡僧)이 [나타나] “그대가 나를 이 산에 안치한다면 필히 순풍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에가쿠가 울며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모두 놀라고 괴이해 하며, 띠를 자르고 엮어 방을 만들어 상을 경건히 안치하고 갔다. 이로 인해 상을 불궁거관음(不肯去觀音)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개원사 승려 도재(道載)가 꿈을 꾸었는데, 관음이 이 절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전각을 세우고 상을 맞이해 받들게 되었다. 상은 마을 사람들의 기도에 늘 응해 “서응관음(瑞應觀音)”이라 불린다…(중략)…송 태평흥국(太平興國, 976~984) 연간에 옛 전각을 화려하게 장엄하고, 오대관음원(五臺觀音院)이라 했는데, 이는 상이 오대산에서 왔기 때문이다…(중략)…가정(嘉定) 13년(1220) 화재로 폐해졌으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오대관음원과 계단은 중건했다.³⁸

용은 엔닌 지음·신복룡 번역, 주해, 『입당구법순례행기』(신인, 2006), pp. 244-45; 251 참조.

³⁸ 開元寺鄞縣南二里 唐開元二十八年建以紀年名 會昌五年毀佛祠此寺例廢 大中初刺史李敬方有請于朝復開元寺…

이상의 내용은 13세기 전반 은현에 있던 개원사와 그곳에 모셔진 불궁거관음상에 대한 것이다. 은현은 영파에 속한 현의 이름이다. 여기 제시된 불궁거관음상의 유래는 앞서 살펴본 『보타락가산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대신 상의 연원을 오대산 중대정사로, 그리고 시기를 당 대중 13년(859)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상이 보타산에 남게 된 계기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계기로 인해 “불궁거관음”이라 이름 붙여졌음을 밝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³⁹ 그러나 이상의 내용은 보타산이 아니라 개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록 오대산에서 보타산으로 이어지는 상의 연원과 연혁을 상세히 소개했으나, 이야기의 주된 목적은 상이 개원사로 옮겨지게 된 계기(개원사 승려의 꿈과 상의 의지)와 옮겨온 후 상이 보인 영험, 그리고 그로부터 정립된 위상(서응관음), 개원사 내에서의 역사(오대관음)와 1277년 『보경사명지』를 편찬할 당시의 상황(1220년 중수)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에가쿠를 주인공으로 하는 불궁거관음상의 전승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다. 1269년 찬술된 『불조통기(佛祖統紀)』와 1298년 편찬된 『대덕창국주도지』 등에서는 모두 이 전승을 따랐다.⁴⁰ 그리고 앞서 살펴본 『보타락가산전』(1361)은 이와 같은 일련의 13세기 기록들을 기반으로 해 작성된 것이다.⁴¹ 단 여

(中略)…有不肯去觀音 先是大中十三年日本國僧惠諤詣五臺山欲禮至中臺精舍 觀觀音像 端雅喜生顏間 乃就壘求願迎歸其國寺衆從之 諤即肩舁至此以之登舟而像重不可舉 率同行賈客盡力舁之乃克勝及 過昌國之梅岑山濤怒風飛舟人懼甚 諤夜夢一胡僧謂之曰 汝但安吾此山必令便風相送 諤泣而告衆以夢咸驚異相 與誅茆縛室敬置其像而去 因呼爲不肯去觀音 其後開元僧道載復夢觀音欲歸此寺 乃創建殿宇迎而奉之 邦人祈禱輒應亦號瑞應觀音 唐長史韋絢嘗紀其事 皇朝太平興國中重飾舊殿目曰五臺觀音院 以其來自五臺山故也…(中略)…嘉定十三年火廢爲民居惟 五臺戒壇重建 『文淵閣四庫全書』第487冊 史部 245 地理類 (驪江: 驪江出版社, 1988), pp. 176-77, 번역은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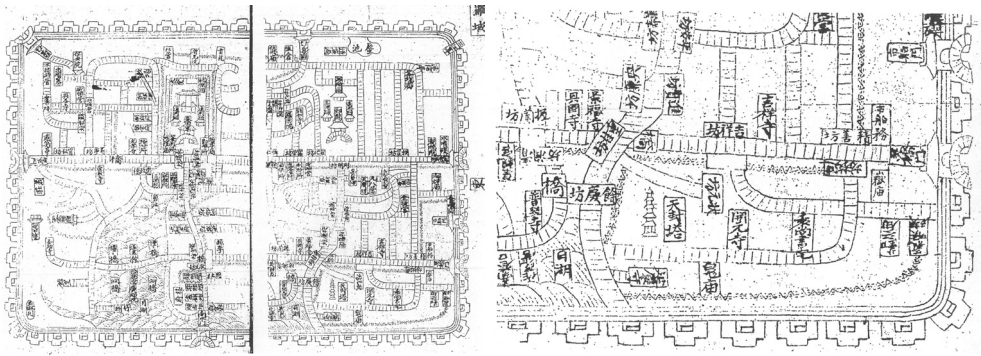
³⁹ “불궁거관음”이라는 표현은 『寶慶四明志』 이전에 찬술된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寶慶四明志』 이후 편찬된 문헌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1260년 찬술된 『佛祖統紀』에는 “請其像歸安開元寺(今人或稱五臺寺 又稱不肯去觀音)”라는 구절이 있어, 개원사에 모셔진 상을 불궁거관음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T. no. 2035, vol. 49, p. 388b22). 한편 1298년 편찬된 『大德昌國州圖志』와 1320년 편찬된 『延祐四明志』에는 “有頃舟行竟泊於潮音洞下 有居民張氏目睹斯異亟舍所居 雙峯山卓庵奉之 俗呼爲不肯去觀音院”의 구절이 있어, 에가쿠가 가져온 상을 봉안하기 위해 보타산에 처음 만든 장소를 “불궁거관음원”이라 했음이 확인된다. 두 기록 모두 “俗呼爲…”라 해, 불궁거관음은 상의 정식 명칭이라기보다는 속칭으로 구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607년 편찬된 『重修普陀山志』와 20세기 초에 편찬된 『普陀洛迦新志』(1924-1934)에서는 모두 장씨가 상을 봉안한 곳을 “呼爲不肯去觀音院”이라고 해 불궁거관음이라는 표현이 보편화, 고유명사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⁴⁰ 『佛祖統紀』 내 보타산 관련 기사는 권42 대중 12년 조에 실려있다 (T. no. 2035, vol. 49, pp. 388b16-c05). 『大德昌國州圖志』의 보타산 기사는 中華書局編, 『宋元方志叢刊』5 (北京: 中華書局, 2001), p. 6098 참조.

⁴¹ 이상 13~14세기 문헌에 실린 이야기들은 거의 동일하나, 세부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대덕창국주도지』에서는 에가쿠가 오대산에서 가져온 상을 “서상(瑞相)”이라 했으며, 상을 배에 실을 때 무거워 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은 『보경사명지』에만 보인다. 이는 이후 개원사로 상이 옮겨가길 원했다는 내용, 즉 상 스스로 자신의 거처를 정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각색된 내용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阿育王像을 비롯한 기존 중국 서상 설

기에는 모두 개원사로 옮겨진 보타산의 불공거관음상을 다시 모각해 보타산에 안치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⁴²

이상의 기록을 참조해 보았을 때, 단카이가 관음상 제작을 의뢰했던 1230년 당시 영파 및 보타산 일대에서는 오대산에서 가져온 관음상에 대한 신앙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상은 영파 개원사에, 그리고 그것을 모각한 상은 보타산 보타관음사에 안치되어 많은 존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상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영파 개원사는 『보경사명지』에 수록된 지도를 통해 13세기 당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도 10-1, 2),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보타관음사는 앞서 살펴보았듯 13세기 전반 황실 및 재상 사미원의 후원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며, 그 이후에도 원 황실 및 지역민의 후원 하에 불전의 개축과 장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⁴³ 그러나 명 초 주산 지역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홍무(洪武) 19년(1386) 칙명으로 보타산 주민을 내지로 이주시키고, 전각들을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한다. 이때 보타산 내에 있던 성



도 10-1 『보경사명지』 수록 낙성 지도(『浙江省四明志』, 中國方志叢書 華中地方575, 成文出版社, 1983, pp. 14-15)
 도 10-2 도 9-1의 세부

화에 흔히 보이는 레토릭이다. 『보경사명지』에는 파도와 바람으로 배가 위험에 빠졌다고 했으나, 이후 세 기록에는 모두 암초에 걸려 항해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보경사명지』와 『불조통기』에서는 초려를 지어 상을 안치했다고 하나, 『대덕창국주도지』와 『보타라가산전』에서는 조음동 인근에 사는 장씨가 목격자로 등장하며, 처음에는 그의 집에 상을 두었고 나중에 그곳이 관음원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불조통기』에서는 상을 가져간 곳으로 은현과 개원사를 명시했으나, 『대덕창국주도지』와 『보타라가산전』에서는 단순히 군이라고만 표현했다.

⁴² 예를 들어 『불조통기』에서는 “其後有異僧 持嘉木至寺 做其製刻之 扇戶施功彌月成像 忽失僧所在 乃迎至補陀山”이라 했으며 (T. no. 2035, vol. 49, p. 388b), 『대덕창국주도지』에서는 “有僧卽大衆中求嘉木刻像 扇戶彌月工竟而僧不見”이라 했다(『대덕창국주도지』, 앞의 책, p. 6098)

⁴³ T. no. 2101, vol. 51, p. 1138a-b.

상(聖像)과 성물(聖物)들은 모두 내지로 옮겨졌다고 하나, 현재 그 행방은 알 수 없다.⁴⁴ 한순간 폐허가 된 보타산은 명 성화(成化) 연간(1465~1487)에 다시 부흥의 기미를 찾았다. 이 때 보타관음사는 보제사(普濟寺)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졌고, 1580년에는 보타산 북쪽에 법우사(法雨寺)라는 절이 세워졌다. 청 개국 후 보타산은 다시 폐쇄되었으나 곧이어 강남 지역 불교도들의 후원을 받아 크게 번성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두 차례 더 굴곡진 역사를 맞이했다. 바로 19세기 말 아편전쟁과 1966년 문화대혁명이다. 이때 보타산의 성물들은 약탈되어 섬 바깥으로 반출되거나 파손되었다. 지금의 보타산은 문혁 이후 폐허로 남겨졌던 전각들을 재건하고 복구한 것이다. 보제사와 법우사 등 오래된 사찰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정비했으며, 그 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새로운 전각들도 세워졌다.⁴⁵ 현재 조음동 인근에 위치한 자죽림(紫竹林) 불공거관음전(不肯去觀音殿)도 근래 일본 불교도의 후원을 받아 새로이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14세기 이전 보타산에 있었던 전각이나 불상들의 흔적은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 앞서 소개한 <보타락산성경도>는 전각이 전소되고 성물들이 외부로 이전되었던 1386년 이전 보타산의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시각자료이다. <보타락산성경도>의 제작연대는 그림 위 제시된 방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향좌측 상부에 있는 “西至慶元路昌國州沈家門”이라는 방제는 그림의 상, 하한연대를 알려준다(도 9). “경원로”는 원 지원 14년(1277)~명 홍무 14년(1381) 사이 영파를 칭하는 데 사용된 지명이며, “창국주”는 지원 29년(1290)~홍무 2년(1369) 사이 사용된 주산반도의 명칭이다. 이를 통해 그림의 제작 시기는 13세기 후반~14세기 중반으로 좁힐 수 있다.⁴⁶ 따라서 여기에는 당시 보타산에 있던 거의 유일한 사찰인 보타관음사가 섬 가운데 매우 크게 표현되었다.⁴⁷ 가운데 붉은 담벼락으로 표현된 웅장한 건물군이 바로 그것이다

44 『普陀洛迦新志』(1924~34) 卷5 「普濟寺條와 卷11 「普陀爲定海縣島之一條에 의하면 관음상은 영파부 성 동쪽으로 이운했으며, 그곳에 棲心寺(현재 七塔寺)를 창건했다고 한다. 칠탑사는 보타산과도 관련이 있어 “소보타”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해당 관음상은 현존하지 않는다.

45 이상의 보타산 역사는 『보타락가산전』 이후 편찬된 보타산 산지들, 그리고 石野一晴, 앞의 논문, pp. 1-36; Bingenheimer, 앞의 책, pp. 16-28 등을 참조해 재구성한 것이다.

46 이에 더해 井手는 원 원통(元統) 연간(1333~34) 선양왕(宣讓王)이 세운 오층의 다보탑(多寶塔)이 그림 내에 없음을 지적하며 하한 연대를 1334년으로 보았다. 이 탑은 9장 6척 높이의 동탑으로, 지금까지도 보타산에 남아 있는 유일한 14세기 이전의 유물이다(도 11). 지금은 보제사 경내에 있으며, 태자탑(太子塔)이라 불린다. 반면 비켄하이머는 그림 내 “分封塔”이라는 방제 옆에 그려진 탑을 이 탑으로 보아 오히려 1334년을 상한 연대로 삼았다(도 12). Bingenheimer, 앞의 책, pp. 58-59. 즉 그는 그림의 제작시기를 1334년~1369년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자 모두 <보타락산성경도>는 14세기, 즉 1386년 보타산이 전소되기 이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시각자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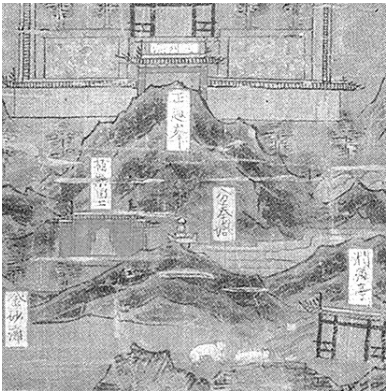
47 그림에는 섬 북동쪽으로 “古寺基”라는 방제가 있어, 또 다른 절의 존재가 확인된다. 하지만 규모도 작고, “基”라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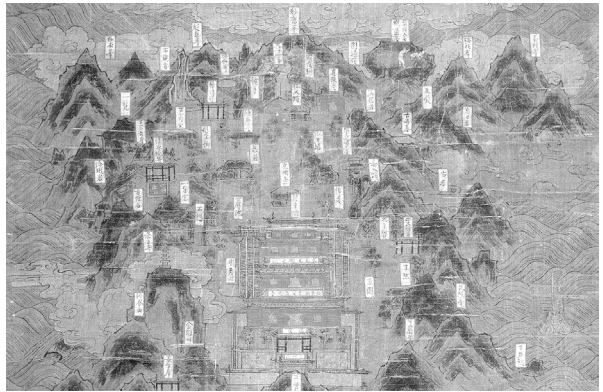
도 11 <태자탑>, 원 1334년, 동, 절강성 보타산
보제사 경내 (최선아)

(도 13). 여기에는 “勅賜觀音寶陀禮寺”라는 방제가 있어 사명이 확인되며, 뒤쪽으로는 조정에서 내린 두 어서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용장각도 있다. 그러나 관음상을 봉안한 원통보전의 내부는 묘사되어 있지 않다. 대신 이 그림에는 두 곳에 관음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화면 상방의 원상내 이미지(도 8)와 화면 하방 향우측의 이미지가 그것이다(도 14). 그 중 하단에 그려진 관음은 흰 옷을 입고 두 손을 배 앞으로 모아 손목을 교차한 채 연꽃 잎 위에 가볍게 서 있다. 이 이미지는 조음동 내에 그려져 있어, 사찰에 모신 특정한 존상이라기보다는 조음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관음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음동은 보타산 내에서도 관음의 시현처(示顯處)로 가장 유명한 곳이었으며, 그 곳에서의 목격담은 『보타라가산전』을 비롯한 여

러 문헌에서 다수 확인된다.⁴⁸ 더욱이 조음동 인근에는 동 안을 향해 몸을 던지며 절을 하는 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거대한 관음의 크기와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크기 차이를 통해 굴 내 표



도 12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도 13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현된 점으로 보아 당시 절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⁴⁸ T. no. 2010, vol. 51, pp. 1137a15-23; 1136a26-b01; 1137b02-b08 등.

현된 관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화면 상부에 표현된 관음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도 8). 앞서 보았듯 풀방석 위에 앉아 있으며, 큰 원광이 몸을 둘러싸고 있다. 더욱이 좌, 우에 있는 협시와 함께 구름 위에 떠서 마치 아래에 있는 보타산을 관장하는 듯, 화면을 압도하고 있다(도 7). 그리고 그러한 구름은 보타관음사 주변에서도 피어올라 섬 바깥으로 퍼져나간다. 여기 그려진 이미지는 별도의 방제가 없어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으나, 앞서 살펴본 『불조통기』, 『대덕창국주도지』, 『보타락가산전』 등 13~14세기 기록을 참조해 보았을 때, 보타관음사 원통보전 관음상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록에는 보타관음사 상외에 다른 특별한 보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욱이 『대덕창국주도지』에는 “지금 불전 내 엄연하게 부좌(跏趺坐)하고 있는 상”이라는 구절이 있어, 보타관음사의 관음은 그림에서와 같이 좌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대신 전각 내 안치된 존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음동 관음처럼 현현의 순간으로 표현한 점은 흥미롭다. 이는 그림 최상부에 적힌 방제인 “補恒洛迦山觀音現神(?)聖境”를 통해 관음이 현현하는 곳으로서의 보타산을 표현하고자 한 그림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⁵⁰



도 14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이상의 분석을 통해 13~14세기 보타관음사에 봉안되었던 관음상의 모습은 〈보타락산성경도〉 상방에 그려진 관음 이미지와 유사할 것이라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은 13세기 개원사에 모셔졌던 불공거관음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단카이가 다시 입송했던 1228~30년 무렵 보타산은 앞서 살펴본 대로 원통보전의 보수를 마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이며, 개원사는 1220년 화재 이후 오대관음원을 중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다. 비록 단카이가 두 곳을 직접 방문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주로 보타산에서 영파로 이르는 해로를 이용해 중, 일

⁴⁹ “今之儼然跏趺坐於殿者是也.”

⁵⁰ 이처럼 보타관음사에 모셔졌던 관음상이 현현으로 표현된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것이 조음동에서 현현한 관음의 모습과 어떤 관계인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에서 논한 바 있다. 최선아, 「성지(聖地)의 형성과 존상(尊像)의 출현 -중국 보타산(普陀山)의 관음상(觀音像)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3 (2019. 5) pp. 135-148 참조.



도 15 <관음보살좌상>, 남송 1237,
목조, 높이 52cm, 효고 호온지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도 91)

을 왕래했던 당시 교통로를 감안했을 때, 단카이는 두 지역에서 중시되었던 관음상의 존재를 익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⁵¹ 또한 그러한 관음상을 모각해 오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음을 효고(兵庫) 호온지(法恩寺)에 소장된 목조관음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도 15). 이 상은 상 내 목서를 통해 단카이 귀국 후 7년이 지난 시점인 1237년 입송해 있던 겐닌지(建仁寺) 승려의 발원으로 명주의 심일랑(沈一郎)이라는 불공이 조각해 일본으로 장래된 것임이 밝혀졌다.⁵² 특히 여기에는 “명주”, 즉 영파를 제작지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 상은 특히 양식적인 측면에서 센뉴지 상과 거의 동일해, 당시 개원사가 있던 영파에 이와 같은 상을 제작하던 공방 내지는 장인들이 존재했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상 일련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13세기 전반 남송의

강남에서는 개원사와 보타사에 모셔졌던 소위 불공거관음상에 대한 신앙과 인기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각을 통한 재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그렇다면 이러한 관음상은 고려에 언제,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

⁵¹ 그의 스승 순조는 입송 시기 사미원과 교류를 했으며, 당시 영파에는 사씨 일족이 보타산을 옮겨 와 재현한 절이 있었다고 한다. 西谷功, 앞의 논문 (2009), p. 262.

⁵² 津田徹英·皿井舞, 『兵庫·法恩寺 木造菩薩坐像』, 『美術研究』 389호 (2006), pp. 48-54; 奈良國立博物館, 앞의 책 (2009), p. 304. 상 내 목서는 머리 안쪽부분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 해당 명문은 다음과 같다. “大宋明州雕佛沈一郎做造/大宋嘉興元(年)丁酉六月十一(庚刀)做造始之同十八(丁酉)合之,” “日本建仁寺正法金剛覺心/渡宋第二度造渡之/日本嘉禎三(丁酉)五月廿七日敬伴.”

⁵³ 동일한 형식의 상 중 현존하는 最古의 예는 영파 天封塔 지궁에서 발굴된 玉像이다. 이 상은 높이 10cm의 작은 상이나, 천봉탑의 중건이 1144년이기 때문에 제작연대를 12세기 전반으로 올려볼 수 있다. 천봉탑 지궁 및 이 상에 대해서는 이승혜, 「지하의 정토: 영파 천봉탑 출토 지궁전(地宮殿) 연구」, 『미술사학』 30 (2015), pp. 108-9. 더욱이 천봉탑은 불공거관음상이 모셔졌던 개원사 바로 옆에 위치해 주목된다(도10-2). 한편 본 논문에서 불공거관음상과 동일한 도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한 일련의 상들은 수인과 지물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와 고찰이 필요하지만, 12, 13, 14세기라고 하는 시기적 차이도 감안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상의 개, 보수로 인해 지물이나 수인에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보타락가산전』에는 가정 연간(1208-1221) 상의 손가락 하나가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T. no. 2102, vol. 51, pp. 1137b09-10). 각 상들은 수인과 지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손의 방향이 동일해,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IV. <불공거관음상>의 고려 전래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보경사명지』 이후 편찬된 영파 지방지나 보타산 산지는 모두 보타산 관음원의 창건이 예가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전승은 일본에도 전해져 가마쿠라 시대 이후 찬술된 불교 사서(史書)나 승전(僧傳)에 반영되었다.⁵⁴ 그러나 근래 한국 학자들이 주목한 바대로 『보경사명지』보다 앞서 찬술된 일련의 기록에는 예가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오대산에서 관음상을 가져온 이는 신라인이라고 해 검토를 요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궁(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1124, 이하 『고려도경』)이다.

매잠(梅岑). 26일 무인일에 서북풍이 아주 심해졌다. 정사가 삼절인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이용해 연안에 올라 매잠에 들어갔다. 예전부터 매자진이 은거하는 지역이라고 전해와 이름을 매잠이라고 했다. 신발 자국과 표주박 흔적이 돌다리 위에 있다. 깊은 산기슭에는 남조의 양나라 때 건립된 보타원(寶陀院)이 있고, 전(殿)에는 신령스럽게 감응하는 관음(靈感觀音)이 모셔져 있다. 이는 옛날 신라 상인(新羅賈人)이 오대산에 가서 상을 새겨 본국으로 싣고 가려다 바다에서 암초를 만나 배가 나아가지 않으니, 암초 위에 내려놓은 것이다. 이에 보타원의 승려 종악(宗岳)이 맞이해 불전에 봉안했다. 이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 복을 빌었으며, 감응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고 한다. 오월(吳越)의 전씨(錢氏)는 그 상을 성 안의 개원사(開元寺)에 옮겼으며, 지금 매잠에서 받들어 모시는 것은 후대에 와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송녕(崇寧) 연간(1102~1106)에 사신이 조정에 알려 새로운 편액을 내리고, 해마다 승려 수를 헤아려 늘려주었다. 옛 제도에 따르면 사신은 이곳에서 기도를 드린다. 이날 밤 승려들이 범음으로 경전을 외우고 범패를 매우 엄숙하게 부르니 삼절(三節)의 관리와 병졸들도 삼가면서 성심껏 예를 다했다. 한밤중에 별이 빛나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니, 사람들이 모두 떨 듯이 기뻐하며 “바람이 이미 정남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다.⁵⁵

⁵⁴ 예를 들어 『元亨釋書』 권16에 실린 예가쿠 전기에서는 그가 안타까운 마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타산에 남아 상을 모셨다고 한다. 이후 그 곳에 보타락산사가 세워졌는데 그를 개산조로 여긴다고 했다. 코칸 시렌 저·정천 구 역주, 『원형석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사』 하 (씨·아이·알, 2010), pp. 38-39 참조.

⁵⁵ 梅岑 二十六日戊寅 西北風勁甚 使者率三節人 以小舟 登岸入梅岑 舊云梅子真棲隱之地 故得此名 有履迹瓢痕 在石橋上 其深麓中有蕭梁所建寶陀院 殿有靈感觀音 昔新羅賈人 往五臺 刻其像 欲載歸其國 暨出海遇焦 舟膠不進 乃還置像於焦上 院僧宗岳者 迎奉於殿 自後海舶往來 必詣祈福 無不感應 吳越錢氏 移其像於城中開元寺 今梅

이 글에서 서긍은 매잠산으로서의 보타산의 전사(前史), 관음원 개창의 시기와 계기, 그리고 그곳에 모셔진 “신령스러운 관음상”의 유래 및 현황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 특히 그는 사신으로서 고려로 가는 길에 직접 그곳에 들러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옮겨, 앞서 살펴본 13세기의 기록들보다 현장감이 높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나 서긍의 기술은 이후의 전승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관음원의 창건을 6세기 양나라 때로 보았는데, 이는 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역사를 앞당긴 결과이거나, 혹은 양 정명 2년(916)에 절이 창건되었다는 또 다른 전승을 오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⁵⁶ 또한 관음원에 있던 상을 개원사로 모셔간 이를 오월국(907~978)의 왕 전씨로 명시한 점도 흥미로운 차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대산에서 보타산으로 관음상을 가져온 이를 일본 승 예가쿠가 아니라 신라 상인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13세기 이후의 전승을 토대로 보타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국외 학자들은 이 대목을 크게 중시하지는 않았다.⁵⁷ 대신 국내에서는 1996년 김문경의 지적 이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⁵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3세기 이후의 전승을 후대에 각색된 것으로 보고, 보타산 창건을 9세기 신라 상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⁵⁹ 김문경의 지적대로 예가쿠 전승과 신라상인 전승은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⁶⁰ 더욱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9세기는 장보고(張保臯) 선단(船團)을 비롯한 신라 상인들이 영파와 고려를 잇는 남방해로를 이용해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였으며, 엔닌이나 예가쿠와 같은 일본 구법승(求法僧)들의 중(中), 일(日) 왕래에도 지대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신

峯所尊奉 卽後來所作也 崇寧使者 聞于朝賜寺新額 歲度緇衣而增飾之 舊制 使者於此請禱 是夜 僧徒 梵誦歌唄 甚嚴 而三節官吏兵卒 莫不虔恪作禮 至中宵 星斗煥然 風幡搖動 人皆懼躍云 風已回正南矣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4 매잠조). 원문 및 번역은 徐毓 지음·조동원 등 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출판사, 2003), pp. 420-421을 참조함.

⁵⁶ 이 전승은 『보타락가산전』 「홍건연혁품」에 나온다. 앞 각주 36 참조.

⁵⁷ 오히려 예가쿠 설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鎌田茂雄은 『中國佛教史』 (東京: 岩波書店, 1982), p. 156에서 “중국에서는 당말 오대에 일본승 예가쿠가 오대산에서 얻은 관음상을 주산열도의 조음동에 안치해 관음원을 창건하면서부터 이곳을 보타락가산이라 불러 관음의 성지가 되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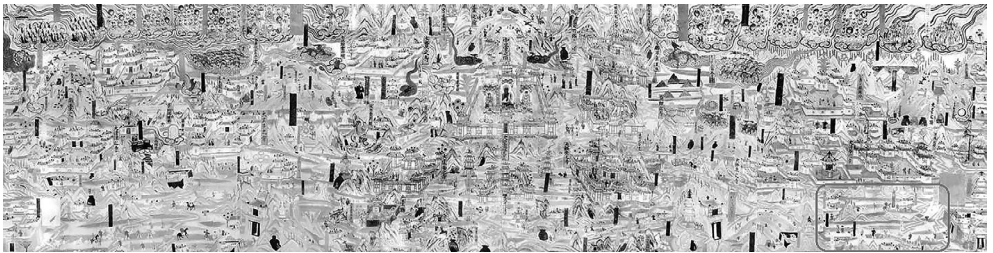
⁵⁸ 김문경, 「9~10세기 신라 사람들과 강남」, 『장보고와 청해진』 (도서출판 혜안, 1996), pp. 61-63; 同著, 「7~10세기 신라와 강남의 문화교류」,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교섭』 (집문당, 1997), pp. 136-137.

⁵⁹ 조영록, 「중국 보타산 관음도량과 한국」, 『한중 문화교류와 남방 해로』 (국학자료원, 1997), pp. 28-32(「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남종선의 도입과 관음설화의 전개—」 (동국대학출판부, 2011), pp. 304-329에 「중국 보타산 관음도량과 신라상인~보타산 불공거관음전(不肯去觀音殿)은 제2의 낙산 흥련암~」으로 재수록); 이기동, 「나팔여초 남중국 여러 나라와의 교섭」, 『역사학보』 제155집 (1997), pp. 10-11; 김문경, 「신라 무역선단과 관세음신앙」, 『장보고와 21세기』 (도서출판 혜안, 1999), pp. 146-47; 문명대, 「중국 보타산 조음동 관음굴 관음전과 한국 낙산 관음굴 관음전의 구조와 관음상 연구」, 『강좌미술사』 15 (2000), pp. 7-24.

⁶⁰ 김문경, 앞의 논문 (1996), p. 63.

라상인 개창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⁶¹ 이처럼 9세기 신라상인에 의한 보타산 개창을 주장하는 논지에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의상(義湘, 625~702)의 낙산(洛山) 개창 설화가 기준이 되기도 했다.⁶² 즉 7세기 후반 의상에 의해 동해면에 관음 진신(眞身)의 상주처(常住處)로 낙산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잘 알았던 신라 상인들에 의해 9세기 보타산 관음도량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강원도 양양 낙산의 흥련암과 보타산 조음동의 지형적 유사성도 거론되었다.⁶³

실제로 오대산을 방문해 관음상을 받아온 이는 신라상인일까? 늦어도 7세기 중엽 이래로 문수보살의 주처로 여겨진 오대산은 9세기가 되면 이미 국내의 많은 이들이 찾는 불교 성지로 자리매김했다.⁶⁴ 그 중에서도 신라인의 방문은 매우 잦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도의(道義)나 행적(行寂) 등 입당 유학한 하대 신라 승려들의 활동을 보면, 대부분 입당 후 바로 오대산을 찾았으며 그곳에서 문수보살의 감응을 받았다는 내용도 자주 확인된다.⁶⁵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61굴에 그려진 <오대산도>(도 16-1)에는 “新(羅)送(供)使”라는 방제와 함께 오대산으로 파견된 신라 사절단이 그려져 있어(도



도 16-1 <오대산도>, 10세기 중엽, 3.5m×15.5m, 감숙성 돈황 막고굴 제 61굴(孫修身 編, 『敦煌石窟全集』 12, 도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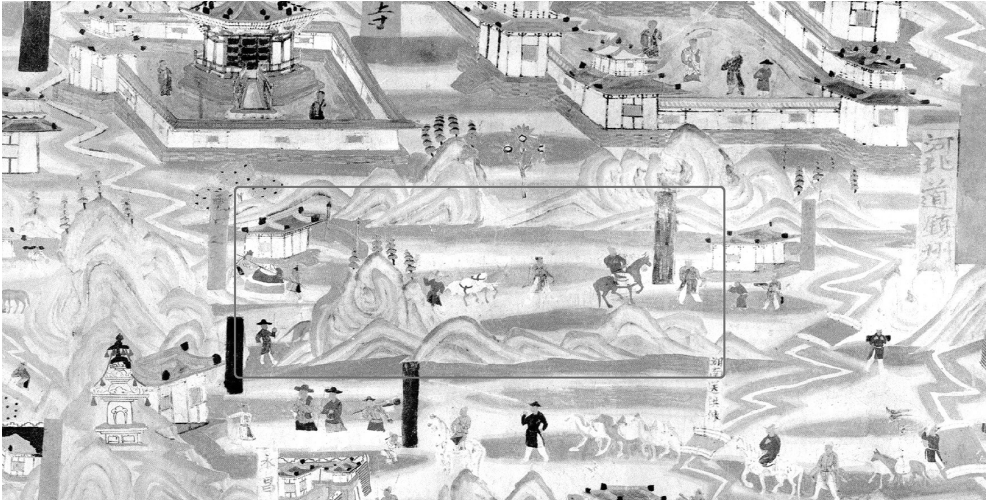
61 실제로 에가쿠는 신라인 李隣德의 배를 타고 명주를 거쳐 귀국을 준비했다. 엔닌 저, 앞의 책, p. 251. 이를 바탕으로 신라상인과 에가쿠 동시 개창으로 본 학자도 있다(조영록, 앞의 논문(2011) 재수록, pp. 328-29).

62 『三國遺事』 권4, 탑상 제4,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63 이상의 내용은 김문경, 앞의 논문(1996), p. 64와 조영록, 앞의 논문(2011) 모두에 언급되었다. 한편 문명대는 낙산 관음신앙을 전파한 이로 梵日을 지목했다. 문명대, 앞의 논문, pp. 12-13. 조영록은 『대덕창국주도지』나 『연우사명지(延祐四明志)』(1320), 『보타락가산전』 등 13~14세기 기록에는 상의 신이를 목도하고 자신의 집을 회사해 관음원을 세운 이로 거민 장씨(張氏)가 등장하는데, 이를 9세기 명주를 근거지로 활발히 활동했던 신라출신 통역사 장우신(張友信) 혹은 그와 같이 장씨 성을 가진 신라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조영록, 앞의 논문(2011), p. 322-23.

64 오대산이 성지로 발전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최선아,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61굴과 오대산(五臺山) 문수진용(文殊眞容)」, 『민족문화연구』 64호(2014. 8), pp. 142-50 참조. 참고로 엔닌은 840년 오대산에 들어가 석 달을 머물렀으며, 에가쿠 역시 841년 제자들과 함께 오대산을 방문했다. 엔닌 저, 앞의 책, p. 251.

65 784년 입당한 도의는 바로 오대산으로 갔는데 공중에서 성룡이 울리는 메아리를 듣고 산속에서 神鳥가 비상하는



도 16-2 도 16-1의 세부

16-2) 신라인들의 방문은 오대산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⁶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학자들의 주장대로 오대산을 방문한 신라인이 관음상을 받아 귀국하는 길에 보타산에 두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욱이 『불조통기』와 『대덕창국주도지』에는 “신라초(新羅礁)”라는 지명이 언급되어, 예가쿠의 전승이 확립된 13세기에도 신라와의 관련성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9세기 오대산에 있었을지한 관음상의 존재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대산 역시 긴 역사 속에 고대의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오대산의 역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을 살펴도 보타산 전승에서 말하는 영험한 관음상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고려도경』을 비롯한 12세기 기록에는 보타산의 발전에 있어 고려와의 관련성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도경』과 거

모습을 보았다 하며(『祖堂集』 권17), 870년 입당한 행적 역시 오대산 華嚴寺로 가 文殊菩薩殿에 예배하고, 홀연히 神人을 만나 남방으로 갈 것을 권유받았다고 한다(『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954)).

⁶⁶ 말을 타고 오대산에 들어가는 사신, 마부, 수행원 등으로 구성된 5인이 그려져 있다. <오대산도>에는 문수보살과 관련된 성적(聖迹), 오대산에서 목도된다고 하는 각종 화현(化現), 그리고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 종합적으로 펼쳐져 있다. 이 그림의 자세한 분석과 의미에 대해서는 최선아, 앞의 논문, pp. 135-175 참조.

⁶⁷ 『佛祖統紀』에서는 “乃結廬海上以奉之(今山側有新羅將)”라 했으며, 『大德昌國州圖志』에서는 “舟抵新螺礁不爲動”라 했다.

의 동시기 기록인 장방기(張邦基)의 『묵장만록(墨莊漫錄)』이 그러한 예다.⁶⁸ 장방기는 선화 연간(1119~1126) 영파에 머물 때, 기우(祈雨)를 위해 보타산에 파견되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왕조(王瓌)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 여기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의 견문이 서술되어 있어, 12세기 전반기 보타산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시 보타산에는 100호 정도의 거주민이 있으며, 5, 60명 가량의 승려가 있는 절이 하나 있다고 해 보타산의 인구와 보타관음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⁶⁹ 특히 주목되는 구절은 “절 내에 있는 종이나 경쇠 등 동으로 된 물건들은 모두 계림상인(雞林商賈)이 시주한 것이라 그 나라의 연호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대목이다.⁷⁰ 여기에서 말하는 계림상인은 신라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려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⁷¹ 또한 “삼한을 비롯한 외국의 배들은 여기에 이르러 반드시 기도를 한다”고 하여, 당시 이곳은 서궁과 같이 중국에서 고려로 가는 사신 뿐 아니라, 고려인들도 빈번히 방문해 시주를 하고 순항을 위한 기도를 올렸음을 알려준다.⁷²

보타산과 고려와의 연관성은 『보타라가산전』에서도 확인된다. 「응감상서품」에 실린 초기 영험담은 주로 서궁처럼 고려에 파견되어 배를 타고 보타산을 지났던 북송 사신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원풍(元豐) 연간(1078~1084)에 고려로 파견된 사신 왕순봉(王舜封)의 이야기다. 그는 보타산을 지나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만나 위기에 처했으나, 열심히 기도를 한 결과 금색 광명이 비치는 가운데 만월의 모습[滿月相]이 나타는 것을 보았고, 귀국 후 자신의 경험을 조정에 고해 “관음보타”라는 이름의 편액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한다.⁷³ 송녕(崇寧) 연간(1102~06) 고려 사행을 온 호부시랑(戶部侍郎) 유구(劉逵)와 급사중(給事中) 오식(吳栻) 역시 환국 길에 보타산을 지나며 관음의 감응을 얻었다고 한다.⁷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보타산을 지나며 관음의 감응

68 『墨莊漫錄』卷 5 (『墨莊漫錄』2 (北京: 中華書局, 1985), pp. 56-7).

69 “山下居民百許家…(中略)…有一寺僧五六十人”(『墨莊漫錄』卷 5, 앞의 책, p. 57).

70 “寺有鐘磬銅物皆雞林商賈所施者 多刻彼國之年號”(『墨莊漫錄』卷 5, 앞의 책,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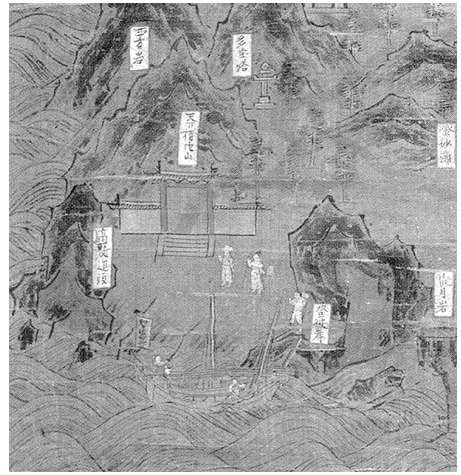
71 계림이라는 표현 자체는 신라 내지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뜻하지만, 한반도에 있는 나라를 뜻하기도 한다. 고려를 칭하기도 했음은 1103년 북송의 사신으로 고려에 온 孫穆이 당시 고려의 풍습과 제도, 언어 등을 적은 『鷄林類事』에서도 확인된다. 연호를 새겼다고 하는 것 역시 고려상인을 뜻할 가능성을 높인다.

72 “三韓外國諸山在杳冥間 海舶至此必有祈禱”(『墨莊漫錄』卷 5, 앞의 책, p. 57).

73 元豐中 謁者王舜封使三韓 遇風濤 大龜負舟 惶怖致禱 忽睹金色晃耀 現滿月相 珠瓔粲然 出自巖洞 龜沒舟行 泊還以奏 上聞 始錫寺額 曰觀音寶陀 (T. no. 2101, vol. 51, pp. 1137a01-04).

74 崇寧間 戶部侍郎劉逵 給事中吳栻 使高麗及還 自群山島 經四晝夜 月黑雲翳 海面冥蒙 不知向所 舟師大怖 遙叩寶陀 未幾 神光滿海 四燭如晝 歷見招寶山 遂得登岸 (T. no. 2101, vol. 51, pp. 1137a08-11).

을 경험했던 이들은 주로 고려로 파견된 북송의 사신이나, 뱃길을 이용해 송과 고려를 왕래했던 상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공은 “옛 제도에 의하면 사신들은 이곳(관음원)에서 기도를 올린다”고 해, 사행 길에 보타산에 정박해 관음상을 예배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알려준다.⁷⁵ 그리고 성희명은 왕순봉의 이야기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기했다: “이 때 이후로 삼한을 비롯한 해동 제국들의 상인들은 큰 배를 몰고 이 길을 갈 때 풍파나 도적을 만나면 산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찾아들고 흩어져 버렸다.”⁷⁶ 이상의 내용은 <보타락산성경도>의 한 장면과도 연결된다. 그림 향좌측 하방에는 “천하보타산”이라는 방제와 함께 보타산으로 들어가는 산문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쪽으로 “高麗道頭”라는 방제가 있다 (도 17). “고려도두”란 보타산을 지나는 뱃길의 이름으로, 12세기 기록인 『운록만초(雲鹿漫鈔)』에서 명칭과 의미가 확인된다.⁷⁷ 이처럼 중국과 고려를 왕래하는 사신과 상인들의 보타산 방문이 잦았던 12세기에 그곳을 경유해 동으로 향하는 길을 “고려도두”라 칭했음은 그만큼 이 지역에 각인된 고려인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도 17 도 7 <보타락산성경도>의 세부

이상의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려에는 봉정사, 보광사 상이 제작되었던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 이전에 이미 보타관음사에 모셔졌던 관음상의 존재가 알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장만록』이나 『보타락가산전』에서처럼 관음상이 모셔진 보타관음사에 들러 시주를 하고 기도를 한 상인들에 의해 상의 형태와 유래, 영험담 등이 고려 사회에 전해졌을 수 있다.⁷⁸

⁷⁵ “舊制使者於此請禱”(위 각주 55 참조).

⁷⁶ “自是海東諸夷如三韓日本扶桑阿黎占城渤海數百國雄商鉅舶繇此取道放洋凡遇風波寇盜望山歸命卽得銷歎感應頗多”(T. no. 2101, vol. 51, pp. 1137a04-07).

⁷⁷ “普陀落伽山自明州定海縣紹賣山泛海東行兩潮至昌國縣泛海到沈家門過鹿獅山…(中略)…自西登舟有路曰高麗道頭…”(趙彥衛(1163년 진사), 『雲鹿漫鈔』).

⁷⁸ 고려상인 뿐 아니라 고려를 방문한 송 상인의 역할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고려를 방문한 송상에 대해서는 이진한, 『高麗時代 宋商往來 研究』(경인문화사, 2011). 비록 보타산 관음의 고려 전래와 관련해 송상의 역할을 추적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고려로 향하며 이용한 뱃길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들에 의한 전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서궁의 전문에서처럼 고려로 사행을 가는 길에 보타산 보타관음사에 들러 기도를 하고 떠났던 사신들을 통해 그들의 경험담이 고려 조정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⁷⁹ 이러한 일련의 기록 및 사건들은 주로 11세기 후반~12세기 중엽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기는 993년 끊어졌던 북송과의 국교를 다시 맺은 1071년(문종25) 이후에 해당된다. 비록 그 전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는 있었으나, 국교 회복 이후 북송과 고려의 공식적 교류는 매우 활발해졌다. 특히 1074년(문종28)에는 거란을 멀리하기 위해 명주를 경유해 북송의 수도 변경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는 명주를 통한 루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도 공식적으로 확대되며 명주를 왕래하는 고려인의 수가 급증해 1117년 명주에 “고려사(高麗司)”를 설치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궁이 고려를 다녀간 지 2년이 지난 1126년, 송은 금과의 내통을 염려해 고려 왕래를 중지시켰고, 1164년 이후에는 사절을 통한 공식적인 왕래를 끊게 되었다.⁸⁰ 비록 이후에도 민간교류는 지속되었으나 공식사절단이 활발히 왕래했던 12세기와는 분위기가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13세기를 기점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일본의 상황과 큰 대비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가쿠 전승이 힘을 얻게 되고, 보타산 신앙의 발전에 있어 신라와 고려의 위상은 점차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⁸¹

V. 마치며

이상 본 논문에서는 중국 보타산 보타관음사에 모셔졌던 불공거관음상의 연원과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도상이 고려에 전해져 12세기 후반 봉정사, 보광사 상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관음상이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을 제시했다. 그동안 외국 학계에서는 13세기 이후의 기록에 의지해 보타산 개창을 주로 일본 승 에가쿠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불공거관음상의 도상을 간직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작례로 센뉴지 상을 언급하기도 했다.⁸²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축적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보타산 개창 및 발전에 있어 신라와 고려인들의 역할을 강조

⁷⁹ 서궁도 그 중 한 사람으로, 기도 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⁸⁰ 정병모, 『寧波佛畫와 高麗佛畫의 비교연구』, 『강좌미술사』9 (1997), pp. 107-09.

⁸¹ 이 점과 관련해 명주 개원사의 역할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려와 보타산의 관계는 이후 원대를 배경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당시 원 대도에 머물고 있던 고려인들이 보타산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⁸² Bigenheimer, 앞의 책, p. 171.

하고, 1230년 제작, 청래된 센뉴지 상보다 30여 년 앞서 제작된 봉정사, 보광사 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더욱이 봉정사, 보광사 상은 센뉴지 상에 비해 양감이 풍부하고 환조미가 강하다. 이러한 양식적 차이는 도상 전래에 이용된 매체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12세기와 13세기라는 시기적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봉정사, 보광사 상이 제작되기 전 고려에서 같은 도상의 상이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 왕실의 원당(願堂)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는 두 절은 수도인 개경이나 명주 및 보타산을 왕래하는 해로와 먼 내륙에 위치한다.⁸³ 따라서 같은 도상의 관음상이 개경이나 서해안 일대에서 먼저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관음신앙에 크게 의지했던 의종(毅宗, 재위 1147~1170)이 1151년 목공장에게 명해 침향목(沈香木)의 관음상을 제작하게 했다는 기록은 특히 주목된다.⁸⁴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많다. 12~13세기 명주에서의 조상 활동과 고려와의 관계, 같은 도상이 고려 불화에서도 확인되는 점, 그리고 고려 낙산 신양 및 낙산사(洛山寺)에 봉안된 건칠관음보살좌상과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이 내용들은 별도의 논고를 통해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주제어(key words)**_봉정사(鳳停寺, Bongjeongsā), 보광사(普光寺, Bogwangsa), 보타산(普陀山, Mount Putuo), 불공거관음(不肯去觀音, Bukenqu Guanyin, or Guanyin who does not want to leave), 고려 중기(高麗 中期, Mid-Goryeo),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Xuanhe fengshi Gaoli tujing*)

▣ 투고일 2019년 3월 3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28일 ▣

⁸³ 손영문, 「고려 중·후기 경북 북부지역의 원찰과 원불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4), pp. 215~254.

⁸⁴ “命以沈香木 刻成觀音像 置內殿” (『高麗史節要』 卷11, 毅宗莊孝大王 5년). 같은 내용은 『高麗史』 卷17, 世家, 毅宗 5년 4일 조에서도 확인된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경전

- 『高麗史節要』
『大德昌國州圖志』
『墨莊漫錄』
『寶慶四明志』
『普陀洛迦山傳』 T. no. 2101.
『普陀洛迦新志』
『本朝高僧傳』
『佛祖統紀』 T. no. 2035.
『宣和奉使高麗圖經』
『元亨釋書』
『雲鹿漫鈔』
『入唐求法巡禮行記』
『泉涌寺要集』
『泉涌寺再興日次記』
『泉湧寺盜難屈綴』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呪經』 T. no. 1043.

2. 한국어 문헌

- 강희정, 「中國 古代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32, 2001. 12.
_____,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 남북조시대에서 당까지』, 일지사, 2004.
김문경, 「9~10세기 신라 사람들과 강남」, 『장보고와 청해진』, 도서출판 혜안, 1996.
_____, 「7~10세기 신라와 강남의 문화교류」, 『중국의 강남사회와 한중교섭』, 집문당, 1997.
_____, 「신라 무역선단과 관세음신앙」, 『장보고와 21세기』, 도서출판 혜안, 1999.
김창균, 「安東 鳳停寺 木造觀音菩薩坐像考」, 『성보』 3, 2001.
문명대,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像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中心으로—」, 『古文化』 22, 1983. 5.
_____, 「高麗 13世紀 彫刻樣式과 開運寺藏 鷲峰寺 木阿彌陀佛像의 研究」, 『강좌미술사』 8, 1996.
_____, 「중국 보타산 조음동 관음굴 관음전과 한국 낙산 관음굴 관음전의 구조와 관음상 연구」, 『강좌미술사』 15, 2000.

-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 徐兢 지음·조동원 등 역, 『고려도경』, 황소자리 출판사, 2003.
- 손영문, 「고려 중·후기 경북 북부지역의 원찰과 원불의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35, 2013. 4.
- 엔닌 지음·신복룡 번역, 주해, 『입당구법순례행기』, 선인, 2006.
- 이기동, 「나말여초 남중국 여러 나라와의 교섭」, 『역사학보』 제155집, 1997.
- 이승혜, 「지하의 정토: 영파 천봉탑 출토 지궁전(지궁전) 연구」, 『미술사학』 30, 2015.
- 임남수, 「X선투과촬영 장치를 이용한 목조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2007.
- 정병모, 「寧波佛畫와 高麗佛畫의 비교연구」, 『강좌미술사』 9, 1997.
- 정병삼, 「인도와 한국의 관음신앙 비교연구」, 『한국학연구』 6집, 1996.
- 정은우, 「高麗前期 金銅菩薩像 研究」, 『미술사학연구』 228·229, 2001. 3.
- _____,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고려중기 금동보살입상」, 『불교미술』 18, 2007.
- _____, 「고려중기와 남송의 보살상」, 『미술사 자료와 해석』, 일지사, 2008.
- _____,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 8, 2009.
- _____, 「고려중기 불교조각에 보이는 북방적 요소」, 『미술사학연구』 265, 2010. 3.
- _____, 「송대 불교조각의 고려 유입과 선택」, 『미술사연구』 25, 2011.
- 정은우·신은제, 『고려의 성물, 불복장』, 경인문화사, 2017.
- 조영록, 「중국 보타산 관음도량과 한국」, 『한중 문화교류와 남방 해로』, 국학자료원, 1997 (『동아시아 불교교류사 연구—남종선의 도입과 관음설화의 전개—』(동국대출판부, 2011), pp. 304-329에 「중국 보타산 관음도량과 신라상인-보타산 불공거관음전(不肯去觀音殿)은 제2의 낙산 홍련암-」으로 재수록).
- 코칸 시렌 저·정천구 역주, 『원형서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사』, 씨·아이·알, 2010.
- 최선아,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제61굴과 오대산(五臺山) 문수진용(文殊眞容)」, 『민족문화연구』 64호, 2014. 8.
- _____, 「성지(聖地)의 형성과 존상(尊像)의 출현—중국 보타산(普陀山)의 관음상(觀音像)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23, 2019. 5.
- 최성은, 「高麗後期 佛教彫刻과 南宋彫刻 關係」, 『강좌미술사』 22, 2004. 6.
- _____, 「瑞山 開心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고려후기 불교조각」,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 _____,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30, 2008. 2.
- _____, 「귀족적 미의식의 정착: 12세기 말-13세기의 보살상」,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_____,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일조각, 2013.
- 황금순, 「洛山說話와 高麗水月觀音圖, 普陀山觀音道場」, 『불교학연구』 제18호, 2007. 12.

3. 동양어 문헌

鎌田茂雄, 『中國佛教史』, 東京: 岩波書店, 1982.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佛たち』,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奈良國立博物館,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西谷功, 「泉涌寺僧普陀山信仰—觀音菩薩坐像請來意圖」, 『聖地寧波』,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2009.

_____, 「楊貴妃觀音像の〈誕生〉(東アジアを結モノ・場)」, 『アジア遊學』132, 2010.

_____, 「佛牙舍利, 韋馱天, 普陀山觀音と宋代佛教文化—泉涌寺僧による「唐物」の請來と展開」, 『特別展 唐物: 中世鎌倉文化を彩る海の恩恵』, 神奈川: 神奈川県立金沢文庫, 2017.

_____, 『南宋・鎌倉佛教文化史論』, 東京: 勉誠出版.

西川新次, 「宋風彫刻雜感—楊貴妃觀音を巡って」, 『MUSEUM』295, 1975.

石野一晴, 「明代万曆年間における普陀山の復興—中国巡礼史研究序説—」, 『東洋史研究』第64卷1号, 2005.

石田充之編, 『鎌倉佛教成立の研究・俊苧律師』, 東京: 法藏館, 1972.

孫修身編, 『敦煌石窟全集12—佛教東傳故事畫卷』, 香港: 商務印書館, 1999.

神奈川県立金沢文庫編, 『特別展 唐物: 中世鎌倉文化を彩る海の恩恵』, 神奈川: 神奈川県立金沢文庫, 2017.

井手誠之輔, 「圖版解説: 長野・定勝寺所藏 補陀洛山聖境圖」, 『美術研究』no 365, 1996.

井手誠之輔, 「入宋僧と寧波文化—討論」, 『寧波の美術と海域交流』, 東京: 中國書店, 2009.

佐藤成順, 「南宋の宰相史浩の補陀山觀音信仰について」, 『鴨台史學』4, 2004.

津田徹英・皿井舞, 「兵庫・法恩寺 木造菩薩坐像」, 『美術研究』389, 2006.

4. 서양어 문헌

Bingenheimer, Marcus. *Island of Guanyin: Mount Putuo and Its Gazette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Yü, Chün-fang. "P'u-t'o Shan: Pilgrimage and the Creation of the Chinese Potalaka." In Susan Naquin and Chün-fang Yü eds., *Pilgrimage and Sacred Places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_____,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국문초록

이 논문은 안동 봉정사(鳳停寺)와 보광사(普光寺)에 봉안된 고려 중기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연원을 중국 절강성 보타산(普陀山)에 안치되었던 소위 불공거관음상(不肯去觀音像)에서 찾고, 그 상이 고려에 알려지게 된 계기와 시점을 추정해 본 것이다. 그동안 외국 학계에서는 『寶慶四明志』(1227), 『普陀洛迦山傳』(1361)과 같은 13세기 이후의 기록에 의지해 관음 성지로서의 보타산 개창을 일본 승 에가쿠(惠諤)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불공거관음상의 도상을 간직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작례로 교토 센뉴지(泉涌寺)의 목조관음보살좌상(1230년 경 남송(南宋) 제작, 일본 장래)을 들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宣和奉使高麗圖經』(1124)과 『墨莊漫錄』(북송 선화 연간)에 실린 12세기 전승을 소개해, 불공거관음상의 등장 및 보타산의 발전에 있어 신라와 고려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려와 중국을 왕래했던 사신과 상인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었던 불공거관음상은 이미 12세기에 고려에 알려져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봉정사, 보광사 상과 같은 새로운 관음 도상이 고려 중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Bukenqu Guanyin* at Mount Putuo, China
and the Avalokiteśvara Statues from Mid-Goryeo
- Tracing the Origin of the Wooden
Avalokiteśvara Statues at Bongjeong and Bogwang Temples -**

Choi, Sun-ah*

This paper examines the legend of so-called “Bukenqu Guanyin” (不肯去觀音, Guanyin who does not want to leave) at Mount Putuo (普陀山) in China and proposes it as the source of origin of the two Avalokiteśvara statues enshrined at Bongjeongsa (鳳停寺) and Bogwangsa (普光寺) at Andong in Korea. A miraculous statue which was allegedly expressed its will to stay at Mount Putuo in the mid-ninth century, Bukenqu Guanyin has been related to a Japanese Buddhist monk Egaku (慧顎), who is described in a series of literary sources written after the 13th century, such as *Baoqing Siming zhi* (寶慶四明志, 1227) and *Putuo luojia shanzhuan* (普陀洛伽山傳, 1361), as the person who founded Mount Putuo as the sacred place of the bodhisattva Avalokiteśvara. In addition, a wooden statue now enshrined at Sennyuji 泉涌寺 in Kyoto (made in Southern Song China and brought to Kamakura Japan in ca. 1230) has been regarded as the oldest extant example which was made after the Bukenqu Guanyin. This paper, however, illuminates the role of Silla and Goryeo in establishing the cult of Bukenqu Guanyin at Mount Putuo, based on the 12th-century records, such as *Xuanhe fengshi Gaoli tujing* (宣和奉使高麗圖經, 1124) and *Mozhuang manlu* (墨莊漫錄, first-half of the 12th century). The literary sources inform us that the Bukenqu Guanyin served as the focus of prayer to the Northern Song envoys and Goryeo merchants who travelled between China and Korean peninsula via sea. Based on the evidence, I argue that the Bukenqu Guanyin was already known in Goryeo as late as the 12th century and that the statues at Bongjeongsa and Bogwangsa, which were made in 1199 and late 12th century respectively, are likely to have been made based on the knowledge and the cult of the Bukenqu Guanyin at Mount Putuo.

* Associate Professor, Myongji University